군종주보

2026년 7월 19일(제1309호)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에겐 신부님? 테토 신부님?"

지나버린 유행어들 중에서 '에겐남', '테토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호르몬 이름을 덧붙여 사회에서 말하는 섬세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성격의 사람에게 에겐남, 에겐녀와 같은 말을 사용했고,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성격의 사람에게는 테토남, 테토녀와 같은 말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신부님들도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본당 공동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나름 '테토 신부님'(?)이 있는 것 같고, 섬세한 모습으로 본당 공동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에겐 신부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에게는 기도 중에 잠깐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군종교구 신부로서, 군 신자분들에게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신부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와는 다른 성격의 신부님들의 사목하시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살아볼까 생각도 하다가 저에게 너무 맞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도 안에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제가 만난 예수님을 닮은 진짜 저다운 신부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나름 노력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밀과 가라지는 처음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뽑으려 하면 밀까지 다칠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이 밀과 같은 모습이라면, 외부의 기대와 고정관념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처음에 구별하기 힘든 가라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의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만 집착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지혜 12,13)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고, 전쟁의 승리는 더 강한 신을 모시는 민족의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신들끼리의 서열 정리였다고 생각해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 신이 우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하느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는 자기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한없이 따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이루는 '자기다움의 완성'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나'라는 도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자기다움의 완성'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셨으며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 나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라는 말씀대로 자기다움의 완성을 향해가는 이번 한 주 지내는 군종교구 신자분들 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인(시도요한) 신부
칠성(육군 제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지혜 12,13.16-19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제 2 독 서	로마 8,26-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마태 13,24-43
영 성 체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7) 종군신부들의 제대와 현역장교 임관

1953년 7월 27일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전쟁의 막이 내리고 휴전에 들어가자 입대한 신부들은 하나 둘 군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1953년부터 1954년까지 2년 동안에 16명의 신부들이 군을 떠나 소속교구로 복귀하였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었다.

첫째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군 사목의 특수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안정된 일반 본당 사목에 강한 향수를 느꼈을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염증과 함께 군종생활은 신부로서는 정상을 벗어난 일종의 외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는 군 사목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회 장상들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는 초기의 군종신부들이 대부분 서울교구와 전주교구의 신부들로서, 서울과 전주 지방이 수복되자 교구의 재정비를 위해서 교구신부들이 당장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 1954년 12월 13일 육군에서는 문관신분의 군종신부와 목사들에게 민간교회에서의 경력에 따라 중령에서 대령까지의 계급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당시 육군의 현역 대상 신부는 6명뿐이었으며, 이들마저 모두 제대할 의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노기남 총재 주교의 간곡한 만류로 그 중 3명은 제대할 의사를 번복하고 현역으로 임관하였다. 이들은 나를 비롯하여, 조상익, 이응현 신부 등이었는데, 군복을 벗고 교구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군에 남아 있기로 결심하였다.

1954년 12월 13일에 육군은 군종요원들에게 현역 계급을 수여하게 되었다. 그 때 육군에서 신부가 3명만이 임관된 데 비해 개신교 목사는 무려 44배에 달하는 132명이 임관하였다. 따라서 군종활동 초창기부터 개신교에 비해 천주교는 숫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현상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때는 인사국 소속이었던 군목과가 군종감실로 승격한 직후였기 때문에 군종감실의 주도권도 완전히 개신교에서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육군에 단 한명의 신부도 입대시키지 않아,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종의 신분이 문관에서 현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천주교의 활동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대

그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소서.

그대!
하늘의 달처럼
맑게 비추소서.

하여,
그대로 인해,
많은 이가
웃을 수 있게 하소서.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종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가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종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청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화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연작(3)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 연작을 살펴본다.

안개가 낀 듯한 한국의 산간 계곡을 배경으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을 부으며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 위로 하늘이 열린 듯 구름 사이로 빛줄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 순간의 역동성을 표현하듯 갈대가 바람에 휘날리며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한국의 선녀를 연상시키는 형상의 천사들이 구름 위에서 옷자락을 휘날린 채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이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

<산상설교>

운집한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 봇짐을 진 나그네, 갓을 내려놓은 선비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선비, 평민들과 여염집 아낙네, 그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양반댁 규수 등 각계각층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앉거나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매우 친근하게 그려져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비승 최승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7월 19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종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작은 가정교회' 를 이루는 본인성사의 해"